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가족기능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mothers'
on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위덕대학교 유아교육학부
전임강사 이 순 복
조교수 정 미 숙

Division of Early Child Education, Uiduk Univ.

Prof. : Soon-Bok Lee

Prof. : Mee-Sook Jeou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분석결과

I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MBTI for mothers' on their parenting self-efficacy and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he study participants comprised 66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79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a twelve-week long parent education program, with weekly sessions providing 2 hours of parental education;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education. Data were analyzed by MANCOVA using scores of the pre-test as covarianc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 parenting self-efficacy, health parenting ability and learning guidance ability subscale. However,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i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주제어(Key Words): MBTI,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1. 서론

오늘날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지는 등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역할은 과거보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자녀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역할은 계속 변화되어야 하므로 부모-자녀 관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역할의 특성과 부모-자녀 관계 변화는 오늘날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아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회생태학적인 접근은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유아의 부모, 가정 및 지역사회 요인들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게 하였고, 나아가 유아발달을 적절하게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윤기영, 서지영, 2001). 즉,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환경이며 그들의 발달에 지극히 중요한 존재로서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그 정도가 매우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화된 부모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현재는 부모-자녀 관계가 건강하지만 앞으로 부모와 자녀의 개인적인 발달 및 가족발달 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수용·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전춘애, 이미숙, 2003). 즉, 부모교육은 부모 상담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기보다는 개인과 가족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교육학 사전에는 부모교육을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을 위한 일종의 성인교육'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속에서 부모교육의 위치는 성인교육 내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유안진, 김연진, 2004). 또한, 부모교육은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경화, 성영혜, 윤석희, 이신동,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의미와 가치 및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아수용능력의 향상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양육태도와 학습지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김명애, 2000)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서양문화권에서 개발되었고, 이를 단순히

번역만 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까닭에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실시 방법 등에서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부모들의 요구를 고려하기 보다는 기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참여율이 낮고 부모교육 효과 또한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고 있는 등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그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김정원, 1999; 윤기영, 서지영, 2001; 이원영, 배소연, 2000; 전춘애, 이미숙, 2003).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전춘애, 이미숙, 2003)를 살펴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주제가 영·유아기 자녀 발달과 부모역할에 관한 내용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성격 유형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아기 자녀 발달을 대상으로 성격 유형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요구도 면이나 필요성에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소지영, 2000)에서 부모교육은 주로 개인면담과 가정통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들은 여건만 된다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참석을 원하고 지지한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직접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동안에 즉시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12주라는 기간동안 단체적인 워크숍 형식으로 실시되어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관한 것들이었으나, 최근에 양육효능감과 같은 양육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문태형, 2002; Coleman & Karraker, 1998;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이는 연구자들에게 양육의 인지적인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육효능감 요인(Coleman & Karraker, 1998; Johnston & Mash, 1989)이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들이 양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 자신들이 자녀에게 대하는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인 영역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들을 더욱 많이 칭고하고 감동하거나 자녀들에 대해 훨씬 반응적이며(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학교 숙제를 돕는 등의 장려적(promotive)이며,

예방적인(preventative) 양육전략을 사용한다(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또한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보다 나은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Rodrique, Geffken, Clark, Hunt, & Fishel, 1994)도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문태형, 2002).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최형성, 2001; Bornstein, et al, 1998; Coleman & Karraker, 1998)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이 두 변인간의 실증적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양육특성과 더불어 가족과 관련된 환경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영역의 가족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에 의하면,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은 애정과 정서에 관련된 기능으로써 가족간의 친밀감,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이고,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가족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적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이며, 가족이 생활주기와 다른 스트레스의 변화에 응하여 가족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가족의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성격유형에 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에 의해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데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부모의 양육능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모의 인지적인 요인과 가족과 관련된 환경 특성 변화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MBTI 성격유형 검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의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시 갖게 되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대안들을 경험적으로 묘사하여 자녀 양육의 적절한 방법과 과정을 제공해 주고 있다. MBTI 성격유형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감지하고 이해하는가 즉 관계를 맺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간의 다양한 행동의 차이점을 설명해 준다(김수연, 김명권, 2002). 이러한 관점을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해 보면 성격 유형에 따라 가족간의 역동이 달라질 것이고,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 또한 다를 것이다. 그 결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MBTI 관련 연구자들은 성격유형을 앎으로써 의사소통 방법(김정택, 심혜숙, 1995; Bayne, 1995; Ginn, 1995)이나 양육태도(여순옥, 1994), 가족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심혜

숙, 광미자, 1997)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기능성의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양육효능감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가족기능성 중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방법

본 연구를 위해 경산, 구미, 포항에 위치한 3개 유치원의 만 4, 5세 유아 어머니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무선 표집하여 실험집단 100명과 통제집단 100명을 나누었다. 실험집단으로 경산의 J유치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오전에 예절실에서, 구미의 I유치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오전에 다도실에서, 포항의 M유치원에서 40명을 대상으로 반일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두 집단의 어머니들 중 실험집단에 소속된 어머니들에게는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회 120분씩 총 12회 동안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와 가족기능성 척도를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1회기에 사전 검사를 하고 12회기에 사후검사를 하였다. 실험집단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서를 낸 어머니들 중 프로그램에 12회 중 10회 이상 동안 참석하겠다고 한 어머니들을 표집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분을 실험 참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진 자로 선택한 것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김경화, 2004; 김명애, 2000)에서 실험집단을 표집한 것에 근거하였다. 또한, 10회 이상 참석한 어머니에 한해서만 실험집단으로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APT: Active Parenting Today)의 경우 8회 중 6회 이상 참석하여야 APT 수료증을 제공하는 것에 근거(Popkin, 1980)한 것이다. 또한, 통제집단은 부모교육 참여 신청서를 내지 않은 어머니들로서 이전에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변인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전체		χ^2 , df
		빈도(기대빈도)	%	빈도(기대빈도)	%	빈도	%	
연령	25-30세	3(3.2)	2.1	4(3.8)	2.8	7	4.8	$\chi^2=3.939$, df=4
	31-35세	44(40.1)	30.3	44(47.9)	30.3	88	60.7	
	36-40세	15(19.6)	10.3	28(23.4)	19.3	43	29.7	
	41-45세	3(2.7)	2.1	3(3.3)	2.1	6	4.1	
	45세이상	1(0.5)	0.7	0(0.5)	0.0	1	0.7	
학력	고졸이하	21(21.4)	14.5	26(26.5)	17.9	47	32.4	$\chi^2=1.294$, df=3
	전문대졸	17(18.2)	11.7	23(21.8)	15.9	40	27.6	
	대학교졸	28(25.9)	19.3	29(31.1)	20.0	57	39.3	
	대학원졸	0(0.5)	0	1(0.5)	0.7	1	0.7	
직업	전업주부	51(47.2)	35.4	52(55.8)	36.1	103	71.5	$\chi^2=6.931$, df=4
	판매서비스	6(6.9)	4.2	9(8.1)	6.3	15	10.4	
	사무직	3(6.0)	2.1	10(7.0)	6.9	13	9.0	
	관리직	1(0.5)	0.7	0(0.5)	0	1	0.7	
	전문직	5(5.5)	3.5	7(6.5)	4.9	12	8.3	
가족월소득	101-200만원	4(12.8)	2.8	24(15.2)	16.6	28	19.3	$\chi^2=20.724^*$ df=4
	201-300만원	28(28.2)	19.3	34(33.8)	23.4	62	42.8	
	301-400만원	14(12.7)	9.7	14(15.3)	9.7	28	19.3	
	401-500만원	14(9.1)	9.7	6(10.9)	4.1	20	13.8	
	500만원초과	6(3.2)	4.1	1(3.8)	0.7	7	4.8	
자녀수	1명	10(9.2)	6.9	10(10.8)	6.9	20	13.9	$\chi^2=.191$, df=2
	2명	48(49.0)	33.3	59(58.0)	41.0	107	74.3	
	3명이상	8(7.8)	5.6	9(9.2)	6.3	17	11.8	
전체		66(66.0)	45.5	79(79.0)	54.5	145	100.0	

* $p<.05$

‘MBTI를 이용한 부모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에 참여한 인원은 145명으로 실험 집단 66명과 통제집단 79명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령, 학력, 직업, 가족월소득, 자녀수 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족월소득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등에서는 동질집단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가족월소득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가족월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0.724$, $p<.05$). 이는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절차

(1)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양육자의 교육방법을 증진할 수 있도록 MBTI 성장 프로그램(김정택, 심혜숙, 1993)을 바탕으로 부모집단에 맞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아동학 전공

교수 2인, MBTI 일반 강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 2인, 유치원 원장 2인 등이 내용 검토, 어휘 수정, 유치원 부모교육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화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 내용은 MBTI 4가지 선호지표에 따른 양육자의 교육방법이고, 두 번째는 MBTI 4가지 기질에 따른 양육자의 교육방법이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2) 프로그램 진행 절차

프로그램의 진행은 ‘MBTI 전문 자격 고급 교육 과정’을 이수한 MBTI 일반 강사 라이선스를 가진 연구자가 각 유치원에서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12회로 이루어졌으며 각 회기는 120분씩 총 24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지도자의 강의와 집단원의 집단 활동 및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매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지도자는 관계형성을 유도하여 동기유발을 자극하고 강의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목표를 전달하여 재인식시키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경험에 대한 소감을 발표, 피드백, 평가하여 프로그램 목표를 인지하도록 도왔다.

〈표 2〉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주	준비물	주제	주요내용
1	MBTI 검사지와 답안지	성인용 MBTI 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따른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및 자신의 선호경향 이해 및 수용
2	MBTI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선호지표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관심의 방향, 에너지의 방향, 그리고 주의초점 차이의 이해 [내향성(I형)과 외향성(E형)에 관한 설명 및 workshop]
3	MBTI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선호지표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른 사물을 보는 관점, 그리고 인식기능 차이에 이해 [감각형(S형)과 직관형(N형)에 관한 설명 및 workshop]
4	MBTI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선호지표	개인의 성격 유형에 따른 결정기능, 선택기능, 그리고 판단기능 차이의 이해 [사고성(T형)과 감정형(F형)에 관한 설명 및 workshop]
5	MBTI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선호지표	개인의 성격 유형에 따른 행동방식, 적응방식, 그리고 생활양식 차이의 이해 [판단형(J형)과 인식형(P형)에 관한 설명 및 workshop]
6	MMTIC 채점지 (사전에 채점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채점)	어린이용 MMTIC 검사 실시	자녀의 성격 유형 이해 및 문제행동 이해 (검사결과에 따른 아동의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7	비디오 테이프	MBTI 4가지 선호지표	자녀와의 의사소통 패턴 이해, 선호경향에 따른 양육태도 인식 ['MBTI 4가지 선호지표에 따른 학습지도법' 에 관한 비디오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7) 시청]
8	MBTI 프로파일, MMTIC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기질	SP기질 아동의 학습양식과 SP유형 양육자의 교육방법에 관한 설명 및 SP양육자들의 자신들의 교육방법 특성에 관한 workshop
9	MBTI 프로파일, MMTIC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기질	SJ기질 아동의 학습양식과 SJ유형 양육자의 교육방법에 관한 설명 및 SJ양육자들의 자신들의 교육방법 특성에 관한 workshop
10	MBTI 프로파일, MMTIC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기질	NT기질 아동의 학습양식과 NT유형 양육자의 교육방법에 관한 설명 및 NT양육자들의 자신들의 교육방법 특성에 관한 workshop
11	MBTI 프로파일, MMTIC 프로파일, 유성펜, 유리테이프	MBTI 4가지 기질	NF기질 아동의 학습양식과 NF유형 양육자의 교육방법에 관한 설명 및 NF양육자들의 자신들의 교육방법 특성에 관한 workshop
12	비디오 테이프	MBTI 4가지 기질	자녀에 대한 과보호 및 과잉기대 개선 및 자녀의 긍정적인 면 파악, 그리고 자녀양육 태도의 일관성 유지 ['MBTI 4가지 기질에 따른 학습지도법' 에 관한 비디오(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7) 시청]

(3) MBTI 성격유형검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유형에 관한 실험도구로 Myers-Briggs(1958)가 제작하고 김정택, 심혜숙(1990)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MBTI를 사용하였다. MBTI 한국 표준화 작업은 1987년에서 1990년에 걸쳐 김정택, 심혜숙(1990)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내적 신뢰도 지수의 경우, EI지표 .77, SN지표 .81, TF지표 .78, JP지표 .82로 검증되었다. 또한 재검사 검증결과 EI지표 .86, SN지표 .85, TF지표 .81, JP지표 .8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각 형의 점수가 높으면 뚜렷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어떤 기능이나 태도가 더 개발되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수가 낮다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그것은 선호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척도를 사용했다. 이는 최형성(2001)이 Dorsey(1999), Allen(1993), Johnston과 Mash(1989)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에 관련된 의사소통능력(9문항), 자녀의 지적 학습과 관련된 학습지도 능력(6문항),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훈육능력(4문항) 등이다. 이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양육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의 Cronbach's α 는 .928이며,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720이며, 의사소통능력은 .917이며, 학습지도능력은 .899이며, 훈육능력은 .854 등이었다.

2) 가족기능성

가족기능성에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포함한다. 가족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Ⅲ(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Ⅲ : FACES Ⅲ)를 전귀연(1993)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했다. FACES Ⅲ는 Cicumplex Model의 두 개의 주요한 차원(응집성과 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가족응집성(10문항), 가족적응성(10문항) 등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을 이룬 가족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극단 가족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가족기능성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성의 Cronbach's α 는 .895, 가족적응성 .847 등이었다.

3. 통계분석

부모교육프로그램 기간동안 참석하지 않은 부모 및 무성

의한 설문지를 제외한 실험집단 66명과 통제집단 79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3.0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처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기능성 사전-사후검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가지고 각 가설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간 평균독점 및 평균차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양육효능감과 가족 기능성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양육효능감과 가족 기능성의 사후검사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COVA를 실시하였으며 .05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분석결과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의 기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양육효능감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등 5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모교육 실시여부(실험집단, 통제집단)를 독립변인으로, 양육효능감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부모양육효능감의 사후점수(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표 3> 실험·통제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실험·통제	사전검사		사후검사		n
			Mean*	SD	Mean*	SD	
양육효능감	전반적인 양육능력	실험집단	37.091	4.729	38.426	4.964	66
		통제집단	37.823	5.760	38.391	5.389	79
	건강양육능력	실험집단	28.030	5.862	28.313	3.261	66
		통제집단	27.481	3.703	26.839	3.717	79
	의사소통능력	실험집단	33.400	3.596	34.067	3.586	66
		통제집단	33.911	4.905	33.729	4.183	79
	학습지도능력	실험집단	21.485	3.579	22.209	3.411	66
		통제집단	21.924	3.419	21.357	2.982	79
	훈육능력	실험집단	14.682	1.970	15.241	1.730	66
		통제집단	15.051	2.130	15.178	2.067	79

*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평균값

〈표 4〉 MANCOVA 결과 요약표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p
양육효능감 (공변인)	Pillai' Trace	.585	38.836*	5,000	138,000	.000
	Wilks' s Lambda	.415	38.836*	5,000	138,000	.000
	Hotelling' s Trace	1.407	38.836*	5,000	138,000	.000
	Roy' s Lardes Root	1.407	38.836*	5,000	138,000	.000
집 단	Pillai' Trace	.078	2.322*	5,000	138,000	.046
	Wilks' s Lambda	.922	2.322*	5,000	138,000	.046
	Hotelling' s Trace	.084	2.322*	5,000	138,000	.046
	Roy' s Lardes Root	.084	2.322*	5,000	138,000	.046

*p<.05

〈표 5〉 단변인 변량분석결과

소스	하위영역	SS	df	MS	F	P
구분	양육능력	.045	1	.045	.003	.954
	건강양육능력	77.930	1	77.930	8.660*	.004
	의사소통능력	4.112	1	4.112	.411	.522
	학습지도능력	25.996	1	25.996	3.900*	.049
	훈육능력	.140	1	.140	.046	.831
오차	양육능력	1973.295	142	13.896		
	건강양육능력	1277.857	142	8.999		
	의사소통능력	1419.285	142	9.995		
	학습지도능력	946.438	142	6.665		
	훈육능력	435.220	142	3.065		
수정합계	양육능력	3870.993	144			
	건강양육능력	1828.234	144			
	의사소통능력	2201.007	144			
	학습지도능력	1465.559	144			
	훈육능력	527.793	144			

*p<.05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COVA를 실시한 결과, 양육효능감의 사전검사의 공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8.836, p<.05). 또한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교육의 주효과는 Wilks' Lambda(F=2.322, p<.05)값을 포함한 모든 다변인 변량분석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부모교육 효과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교육(실험·통제)의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는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서는 실험집단(평균=28.31)이 통제집단(평균=26.84)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학습지도능력 하위요인에서도 통제집단(평균=21.36)에 비해 실험집단(평균=22.21)의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효과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가족기능성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나타내었다. 가족기능성 척도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등 2

〈표 6〉 실험·통제에 따른 가족기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실험·통제	사전검사		사후검사		n
			Mean*	SD	Mean*	SD	
가족기능성	가족응집성	실험집단	37.136	4.392	38.279	4.486	66
		통제집단	37.760	5.112	37.375	5.667	79
	가족적응성	실험집단	31.091	4.790	32.319	4.605	66
		통제집단	31.873	4.680	33.050	4.420	79

* 공변인에 의해 조정된 평균값

〈표 7〉 MANCOVA 결과 요약표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p
가족기능성	Pillai' Trace	.630	120.029*	2,000	141,000	.000
	Wilks' s Lambda	.370	120.029*	2,000	141,000	.000
	Hotelling' s Trace	1.703	120.029*	2,000	141,000	.000
	Roy' s Lardes Root	1.703	120.029*	2,000	141,000	.000
집단	Pillai' Trace	.037	2.727	2,000	141,000	.069
	Wilks' s Lambda	.963	2.727	2,000	141,000	.069
	Hotelling' s Trace	.039	2.727	2,000	141,000	.069
	Roy' s Lardes Root	.039	2.727	2,000	141,000	.069

* p<.05

〈표 8〉 단변인 변량분석결과

소스	하위영역	SS	df	MS	F	P
구분	가족응집성	29.290	1	29.290	2.527	.114
	가족적응성	19.102	1	19.102	1.658	.200
오차	가족응집성	1645.706	142	11.589		
	가족적응성	1636.375	142	11.524		
수정합계	가족응집성	3818.372	144			
	가족적응성	2947.407	144			

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모교육 실시여부(실험집단, 통제집단)를 독립변인으로, 가족기능성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가족기능성의 사후점수(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COVA를 실시한 결과, 가족기능성의 사전검사의 공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20.029, p<.05). 그러나 〈표7〉과 같이 부모교육의 주효과는 Wilks' Lambda(F=2.727, p<.05)값을 포함한 모든 다변인 변량분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가족기능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가족기능성의 변화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얻어진 연구결과들을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 및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문 제별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학습지도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학습지도능력 하위요인에서도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양육효능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 자녀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과 관련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자녀의 바람직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이끄는 경향이 있으며(최형성, 2001; Coleman & Karraker, 1998; Dorsey, 1999; Teti & Gelfand, 1991), 낮은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는 아동학대에도 관련되어 있다(최형성, 2001; Coleman & Karraker, 1998; Dorsey, 1999; Johnston & Mash, 1989)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고유한 장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양영숙, 2000),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적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건강한 자아수용의 형성을 도와 자녀의 신체적 건강 뿐 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고 강조하여 자녀에 대해 지각하는 건강양육능력과 관련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Bandura(1997)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생리적·정서적 상태에 의해 전달되는 신체적·정서적 정보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데,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긴장과 불안울 느낄 경우 자기 효능에 대한 믿음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유추해 볼 때 유아의 건강에 관한 신체적·정신적 정보에 대한 어머니의 강한 신념이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증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학습지도능력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학습지도능력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자녀의 기질에 맞는 학습양식과 양육자의 교육방법에 맞는 실증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영향으로 자녀의 지적 학습과 관련한 영역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MBTI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

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의 양식에 대해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인식 수준과 다른 사람들의 진가를 인정해 주는 수준을 고양시켜 준다(Hirsh & Kummerow, 1997). 그러면, 자녀의 개인차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서 더욱 자녀의 심신 건강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어머니가 자녀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법을 인식하게 되어 자녀의 학습에 관한 영역에서는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육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한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 의사소통능력, 훈육능력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반적인 양육능력은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거나 양육에 관한 지식, 행동 등에 대해 지각하는 것이다. 양육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성공적인 경험들은 양육효능감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으나, 힘들었던 양육의 경험은 양육효능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이순복, 전귀연, 2005).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인 양육효능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안지영, 박석연, 2002), 낮은 양육효능감은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과 관련(최형성, 2001; Coleman & Karraker, 1998; Dorsey, 1999; Johnston & Mash, 1989)이 높다.

어머니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좋은 부모역할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성격유형과 자녀의 성격유형을 상세히 파악하는 과정 중 프로그램 기간동안 실제로 어머니와 자녀의 성향이 다르다는 지각하게 되어 양육에 대해 힘들게 생각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양육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느끼지 못해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능력의 높은 자신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PET를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한 연구(이혜란, 정문자, 1998)에서는 의사소통과 신뢰, 훈육과 권위 등의 요인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강사의 강의를 통해 의사소통에 관한 여러 가지 원리를 배우고 토론하며, 강사의 시범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배울 뿐 아니라 교육받은 기술을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용하여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발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의사소통과 신뢰, 훈육과 권위 등의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영역인 의사소통능력 하위요인과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

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평가하는 면의 훈육능력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하지 않았고, 성격유형과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지도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이 영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 MBTI를 활용한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기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 변량분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가족기능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성에서 측정된 하위요인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감과 개인이 경험하는 자유성의 정도이며, 가족이 함께 밀착되어 있는 정도를 뜻하며(Olson, Portner, & Lavee, 1985), 가족들 간의 유대, 가족의 경계, 가족의 연합, 공유시간, 의사결정, 가족들 간의 흥미와 오락수준 등에 대해 최적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이는 가족 체계내의 감정·정서적 차원이다. 또한, 가족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Olson, Russell, & Sprenkle, 1983)되며,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족의 응집과 함께 가족관계 및 가족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MBTI는 성격유형에 대해 인식하고,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며, 자신들의 성격 유형이 가족들과 다르다 하더라도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하고, 자신의 장점을 더욱 발달시켜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꾀할 수 있다(송근진, 박충선, 1999; 김명애, 2000)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가족체계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작용을 하는 하나의 사회체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연쇄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전귀연, 1993)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부모교육이라는 교육에 의해 가족들의 수용이 원활히 상호 작용이 되거나,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 혼자 가족체계의 향상을 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족 중 어머니만이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여 MBTI 성격유형에 대해 이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부모의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부모 자신들이 자녀에게 대하는 양육에 대한 신념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자녀의 보다 나은 사회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는지, 또한 가족구성원이 외부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가족이 함께 유대관계를 높이고, 또한 가족이 환경 변화에 융통적으로 변화하여 가족 상호작용을 높여 가족기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의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MBTI 성격 유형검사를 활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것은 장기적으로 어머니의 성격과 자녀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높여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프로그램에서 12주라는 기간을 두고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적인 관계나 정서적 유대면이 짧은 시기동안에 변하는 요인이 아니므로, 본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관리로 주기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재교육의 필요성, 교육 횟수, 자녀와 상호작용을 한 후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발표하는 등의 후속 프로그램의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 유아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최근 연구동향은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대부분이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온전한 부모교육이라는 범주에 넣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앞으로의 연구는 연구 대상에 부모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련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가족기능성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므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방법 외에 관찰, 면접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가족기능성 변화를 측정하고 나아가 어머니와 자녀 간의 행동 변화를 보다 심도있게 질적 분석을 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 참고문헌

- 김경화(2004).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자아개념 및 육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2), 184-198.
- 김명애(2000). MBTI를 이용한 부모교육이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연, 김명권(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MBTI 성격유형과 부모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75-187.
- 김정원(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택, 심혜숙(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3(1), 44-72.
- 김정택, 심혜숙(1993). MBTI 성장 프로그램 지도자 안내서(1),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1995).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소지영(2000). 유치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연구. 한국 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근진, 박충선(1999). 청소년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6(2), 499-520.
- 심혜숙, 박미자(1997).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위한 MBTI 성장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4(1), 1-28.
- 안지영,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영숙(2000).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수용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순옥(1994). 어머니의 성격유형이 부모효율성 훈련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김연진(2004).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윤기영, 서지영(2001).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서원대학교 교육발전*, 20(1), 129-155.
- 이경화, 성영혜, 윤석희, 이신동(1999). 부모교육-사랑, 결혼, 부모. 서울: 학문사.
- 이순복, 전귀연(2005). 어머니의 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77-96.
- 이원영, 배소연(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7-30.
- 이혜란, 정문자(1997). P.E.T.가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18(2), 241-265.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전춘애, 이미숙(2003).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1-29.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1997). 성격에 맞는 학습방법. 생방송 TV 여성시대(KBS부산 방송국).
- Allen, E.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Company.
- Bayne, R.(1995).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 a critical review and practical guide*. L.d: Chapman & Hall.
- Bogenschneider, K., Small, S. A., & Tsay, J. C.(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45-362.
- Bornstein, M. H., Haynes, M., Azuma, H., Galperin, C., Maital, S., Ogino, M., Painer, K., Pascual, L., Po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4.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Dorsey, S.(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Elder, G. H., Eccles, J. S., & Ardel, M.(198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 Perspective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771-784.

- Ginn, C. C.(1995). *Families : Using type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CAPT.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Hirsh, S., & Kummerow, J.(1989). 심혜숙, 임승환 역 (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Myers, I. B.(1958). *Manual :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rinceton, NJ : Educational Testing service[Distributed b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CA].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 III. St. Paul :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opkin, M. H.(1980). 홍경자 역(2005).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Rodrique, J. R., Geffken, G. R., Clark, I. E., Hunt, F., & Fishel, P.(1994).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abetes. *Children's Health Care*, 23, 181-191.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2006년 8월 28일 접수, 2006년 9월 27일 채택)